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방송미디어 교육모델 개발

*이상길 **양승규

동아방송예술대학교

*sglee@dima.ac.kr

Development of Broadcasting Media Education Model corresponding to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Lee, Sanggil **Yang, Seungkyu

Dong-Ah Institute of Media and Arts

요약

4차 산업혁명 대비 방송미디어 교육학습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현장중심의 교육 모델을 개발하여 활성화 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은 특성화 대학의 방송미디어 교육 품질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하기 위해 방송채널을 운영하며 이를 활용하여 방송미디어 교육과 접목시킨 연구 결과에 대해 기술하였다. 이론교육과 단순한 실습으로 종합예술분야인 방송제작 역량을 키우는 데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실제 현장직무를 수행하는 전국방송채널을 개국하여 축적된 방송미디어 인프라를 활용하고 방송국을 중심으로 한 현장중심의 교육체계를 구축, 운영함으로써 교육의 질을 향상시켰다. 그 결과, 서로 다른 전공의 학생들이 콘텐츠 제작 교육에 함께 참여함으로써 직무능력 향상 및 취업의 확대는 물론이고 대학의 비즈니스모델 창출로 산학협력도 강화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1. 서론

4차 산업혁명시대가 도래하면서 많은 직업이 사라지고 또한 새로운 직업이 생겨나는 일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이로 인해 대학은 다른 기관에 비해 교육시스템의 변화 속도가 상대적으로 낮아서 급변하는 환경에 대응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특히, 예체능계열로 분류되는 방송예술대학의 산학협력 환경은 공학계열과 같은 다른 계열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하다. 따라서 졸업생들은 취업기회가 적거나, 맞춤형 교육의 부족으로 기업에 취업 후에도 어려움이 많다.

저자가 재직하는 동아방송예술대학교는 모든 학과가 방송예술분야에 해당하는 100% 특성화 대학으로 방송예술인재 양성을 목표로 운영되어 왔다. 대학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개교 이래 국내 뿐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손색이 없는 방송예술 교육 인프라와 시스템을 구축하여 국가 및 지역 산업 발전에 기여해 왔다. 국내 최대 규모의 촬영소, HD 스튜디오, UHD 스튜디오, 가상스튜디오 등 방송사 수준의 시설을 갖추고 학생들을 교육하여 왔으며 풍부한 방송용 카메라, 각종 편집장치 등을 학생들에게 제공하며 현장중심의 교육을 해오고 있다.

부속병원을 운영하는 의과대학이 학생들의 재학기간에 현장과 동일한 의료 교육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수준 높은 의료역량을 키우는 것처럼, 방송예술대학도 직접 방송국을 운영하면 재학기간에 현장경험을 쌓고 졸업 후 바로 현업 직무가 가능한 방송인재를 길러낼 수 있는 것이다.

동아방송예술대학교는 이러한 미디어 정책방향을 정하고 2015년

전국방송채널 ‘캠퍼스TV’(현 ‘브릿지TV’)를 개국함으로써 명실상부한 방송예술 특성화대학으로 발전하였고 이를 통해 새로운 교육모델과 방송예술 기반의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게 되었다. 본문에서는 방송예술 특성화대학으로서 대학의 고유한 교육모델을 연구 개발한 결과를 소개하기로 한다[1].

2. 방송미디어 교육모델 개발 배경

21세기 문화·예술·미디어 환경을 창조적으로 개척해 나아갈 글로벌 리더를 육성하고자 대학의 사명을 ‘방송예술 산업의 글로벌 창의인재 양성’으로 정하고 그동안 미디어·예술 콘텐츠 분야로 집중된 전문가를 양성해오고 있다. 또한 전체 학과가 모두 방송예술 특성화를 위한 학과로 구성되어 있어서 방송 콘텐츠 제작을 위한 기획, 작가, 기술/영상/음향 감독 직무 교육을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고 있다. 방송 시설도 국내 최대규모의 600평짜리 스튜디오를 포함한 종합촬영소, UHD스튜디오, HD스튜디오, 가상스튜디오, 중계차를 포함한 첨단 시



그림 1. DIMA 종합촬영소 스튜디오 내부 및 HD중계차

설 및 장비가 구비되어 있다.

이처럼 방송예술 대학의 교육환경을 이미 구비하고 있지만 재학생들이 종합예술에 해당하는 방송제작 현업을 직접 경험하여 현장 직무역량을 더욱 높이기 위해서, 방송국을 개국하고 이를 운영하면서 학생들의 교육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바람직한 교육모형을 구축하는 연구를 진행하게 된 것이다.

3. 방송채널 운영

모든 학과가 개별적으로는 방송예술 미디어 산업을 선도하고 학생들은 각각 이러한 직무를 수행할 역량을 갖추고 있다 할지라도 종합예술인 방송 프로그램 제작을 위해서는 재학 때부터 융합적인 사고와 협업 마인드를 가지고 현장을 직접 체험하게 하는 것이 취업진선에서 바로 직무를 활용할 수 있는 지름길이 된다. 따라서 방송예술 대학이 전국방송채널을 운영하면서 학생들이 직접 방송제작 교육에 참여하여 직접 제작한 콘텐츠를 방영해보기도 하면서 다양한 전문 제작 분야에서 수준 높은 콘텐츠를 협업하며 제작할 수 있는 직무능력을 배양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현재 대학은 이러한 미디어 정책의 방향을 정하고 방송 프로그램을 24시간 방영할 수 있는 청년문화채널 ‘브릿지TV’를 IPTV(KT 올레TV)와 CATV(티브로드)에서 운영하고 있다. 이로써 대학과 밀접하게 협업할 수 있는 산학협력 생태계를 조성하게 되었다. 또한 방송예술 특성화 대학으로서 고유한 교육모델과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고 창의적 방송예술인재 양성을 위한 현장교육을 실현하고 콘텐츠 기획, 제작, 유통을 통한 비즈니스 모델의 사업화를 실현할 수 있는 기반도 다지게 되었다.

4. C3 창의교육모델 개발

표 1. C3 창의교육 모델

교육모델		내용
창의융합 교육모델	융합수업연계	-직무별 해당학과 학생모집 -정규수업 진행
	창의실무연계	-창작동아리 모집 -전문가 콘텐츠 기획 및 제작지원
	캡스톤디자인연계	-캡스톤디자인식 교과목 개설 -콘텐츠 제작 교육
현장실무 교육모델	현장실습연계	-장단기 현장실습 학생모집 -교수, 전문가, 학생 중심 콘텐츠 제작
	산학협력연계	-킬러콘텐츠 기획 -산학 협업 교육 및 콘텐츠 제작

방송채널을 운영하면서 학생들이 이론과 부분적 실습에만 머무르지 않고 직접 방송국에서 근무하는 환경으로 방송실무교육을 받을 수 있는 창의융합 및 현장실무 중심의 『DIMA C3』 창의 교육 모델』을 개발하였다. 방송채널은 산업체로서 대학은 교육의 장으로서 상호 협

력하며 학생들의 직무역량을 최대한 강화할 수 있도록 대학 교육체계 내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교육모델을 표 1과 같이 개발하여 이를 진행하였으며 각 모델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다음에 기술하였다.

1) 창의융합 교육모델

창의융합 교육모델은 대학 내의 정규 혹은 비정규 교육과정으로 개설하고 학생들에게 과정을 이수할 수 있게 하는 모델로서 융합수업 연계 교육모델, 창의실무연계 교육모델, 캡스톤디자인연계 교육모델로 분류하여 진행한다.

- 융합수업연계 교육모델 : 방송제작 역량강화를 위해 기존에는 학생 본인이 속한 학과의 전공역량만 향상시킴으로써 현장중심의 충분한 교육을 받을 수 없었다. 이에 반해 융합수업에서는 서로 다른 분야를 전공한 학생들이 함께 모여 방송 콘텐츠를 제작하는 수업으로, 방송국처럼 학생들이 직접 기획, 연출, 작가, 분장, 기술 감독, 영상 감독, 음향 감독 등의 역할을 담당하면서 협업 제작 교육을 받는다. 학생들의 멘토 역할을 담당할 방송국 현업출신의 산학협력중점교원, 전문 PD, 작가와 함께 수업을 진행하면서 콘텐츠를 제작하여 ‘브릿지TV’에 방영하고 이를 성과관리 체계에 의해 피드백 받음으로써 더욱 질 좋은 콘텐츠 제작능력을 향상하는 것이다.

- 창의실무연계 교육모델 : 재학생들의 젊은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하는 콘텐츠 제작 지원 사업으로 학과 내의 전공동아리 혹은 창작동아리를 모집하여 연극, 뮤지컬, 영화, 다큐멘터리 등 다양한 콘텐츠 제작을 지원한다. 이렇게 하면 학생들의 자발적인 다양한 제작 경험을 통해 실무 능력을 증진시키고 개인 포트폴리오 확대에 의한 취업 능력을 향상시킨다.

- 캡스톤디자인연계 교육모델 : 캡스톤디자인(capstone design)²⁾ 교과과정을 통해 학습자가 창의적인 현장맞춤형 교육으로 기획에서 제작까지 현장과 동일하게 진행하며 실제의 콘텐츠를 제작함으로써 학생의 직무능력을 향상하고자 하는 것이다.

2) 현장실무 교육모델

현장실무 교육모델은 재학생 혹은 장단기 현장실습생들에게 방송국의 실질적인 제작과정을 경험할 수 있는 모델로서 현장실습연계 교육모델과 산학협력연계 교육모델로 개발되었다.

- 현장실습연계 교육모델 : 재학생들이 ‘브릿지TV’ 방송국에 단기 혹은 장기현장실습 기간에 방송국의 인력(PD, 작가)과 책임교수들의 지도로 방송채널의 정규 방송 프로그램 제작에 분야별 인력으로 참여하여 제작과정을 경험하게 함으로써 취업 역량을 강화하고 학생 각자의 커리어를 향상하는데 도움을 준다.

- 산학협력연계 교육모델 : 고품질의 콘텐츠를 제작하여 방송채널에 송출하기 위해서 대학, 학생, 기업을 연계하여 보다 전문적인 고품질의 콘텐츠를 제작하는 것이다. 현장실습생 및 재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난이도 높은 방송프로그램을 외부 산업체와 협업해서 방송 콘텐츠를 제작하는 것으로 산업체에서 요구하는 수준의 직무능력을 향상시키고 산업체의 제작기술과 노하우를 전수 받게 되는 것이다.

1) DIMA C3 : Dong-Ah Institute of Media and Arts Creativity, Convergence, and Contents

2) 캡스톤디자인: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 해결 능력을 길러주기 위해 작품의 기획, 설계, 제작 전 과정을 경험하는 정규 교육

5. 결론

지금까지 방송예술 특성화대학의 전국방송채널 운영을 통한 교육 모델 개발에 대해 기술하였다.

‘브릿지TV’는 단순히 교내 방송국이나 인터넷 방송국이 아닌 국내 유료방송 플랫폼의 PP(채널사용사업자)로서 명실상부한 청년문화의 방송채널 사업자이며 국내에서 유일하게 대학이 운영하는 전국방송채널이다. 본 발표에서는 특성화대학으로서 전국방송채널을 기반으로 한 교육모델을 구축하여 현장중심의 융합교육을 이수함으로써 대학이 지향하는 직무능력을 향상시킬 방안을 제시하였다.

향후, 지금까지 구축한 방송 인프라 및 교육환경을 기반으로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교율모델의 고도화 및 신교육모델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참 고 문 헌

[1] 동아방송예술대학교, SCK육성사업 연차평가보고서, 2014-2017.